LIBRARY. POSUNG

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第二十號

社說
文普戰士의 出陣
半萬名學生에게 呈함

一

京城의 中等程度以上 各學校는 今日로써 放學이된다. 이날이 即, 學生生徒 諸君의 歸鄕하는날이오, 同時에 半萬名 諸君은 文普戰線으로 나가는날이다. 이날에 際하야 一言을 提供하는바이다. 어느學者의 말에 隅田川의 흐름과 흐름은 테임쓰江의 흐름과 相通한다는 말이 잇다. 隅田川은 東京에 잇고, 테임쓰江은 英國倫敦에 잇다. 그러므로 隅田川물이 만흐면, 테임쓰江물이 따라서 만코, 테임쓰江물이 흐리면 隅田川물이 따라서 흐린다는것이다. 다만 根源地와 그 影響을 밧는 地方과의 사이에 맑음, 흐림의 程度와 時間에 差가 잇을것은 勿論이다. 이 말의 뜻은 이 地球上의 한 地域에, 『잇는 일』 「생긴 일」은 그것이 조흔 것이던 나뿐 것이던, 곳 世界全體에 影響을 미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比喩를 비러 말하면 우리 朝鮮이 現在, 全人口二千萬中에 七十三파센트以上의 文盲을 가지고 잇다는 一事는 홀로 朝鮮이라는 한 社會의 進退浮沈에만 關한것이 아니라, 또한 이 地球上, 全人類에 對해서도 가볍지 아니한 影響을 미치는것이다.

暫間, 一例를 들어 보자. 假令, 東京을 떠나서, 朝鮮, 滿洲國, 露國을 거처서 獨逸의 伯林, 佛蘭西의 巴里까지, 가 닷는 國際列車가 잇다고하자. 이車가 釜山과 新義州의 사이를 通過하는 동안에 우리朝鮮사람의 한사람이 『기차를조심하시요』라고 쓴 注意牌를돌을낫기 때문으로 車가 막 通過하려는 線路안으로 드러섯다고 하자. 이때 機關手는 다닷는 瞬間에 사람을 보고 놀내며, 疾走中의 列車를 急작히 停車햇다고 하자 그때문으로 車體가 大衝動을 밧어 甚한 程度로 動搖되엿다고 하자. 動搖되는바람에 假令, 例하면 이列車에 탓던 獨逸伯林大學敎授 한분이 治療一個月以上을 要할 程度의 重傷을 當햇다고하자. 이런 境遇를 當하면 그가 個人으로 精神上, 肉體上의 莫大한 損害를 볼것은 勿論이어니와 그의 故國에서 그의 歸來를 기다리서 그의敎授를바드려든 多數의 學生들까지도 적지 안흔 打擊을 바들것은 勿論이다. 이것을보면 朝鮮內의 한 無識한 사람의 存在는 그影響이 멀니 西洋에 잇는 西洋사람들에게까지 미침을알것이다. 이것을 다시 아까 말한 比喩를 그대로 비러서 말해 보면 漢江의 흐름은 라인江의 흐름과 서로 通한다。 그러기 때문으로 漢江물이 흐린체로 그냥 잇고는 라인江물이 혼자맑을수 업는것이다.

이것을보면 今秀, 京城에 잇는 半萬餘名의學生生徒諸君이 『아는것이 힘』 『배워야산다』의 二大標語를 들고, 朝鮮三千里의 坊坊曲曲에, 흐터져가서 文盲同胞에게 「가갸거겨」를 가르치는 事業은 이것이 홀로朝鮮이라는 조고마한 社會에 對한獻身的奉仕가 될뿐아니라, 다시 한層 나아가서는 世界全人類의 安寧과 幸福에 對한 獻身的奉仕라고 할것이다。 그러타하면 이에서 더 큰일이 어디잇으며, 이에서 더 거룩한일이 어디 잇슬까

二

그러나 다시한번 觀點을 돌리어 생각하면 當面한 文字普及運動은 이 社會를 爲해서 보다도, 또는全人類를 爲해서 보다도 學生生徒諸君自身을 爲해서 하지 아니치못할 焦急한 運動이다。 이 一點은 特히 깁히 또는 明瞭히 認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社會안에서나라는 한個人과 또 나와 가치 사는 나의 이웃과의 關係는 모도 合하야 一列로 느러서서 한줄로 허리를매여 가지고 競走를 하는것과 가튼다。 나라는 個人 하나만이 아모리 힘이 세고 팔다리가 敏捷하다고 할지라도 가튼 줄에 매인 나의 이웃사람들이 나와 가튼 힘과 가튼 敏捷을 가지고 다름박질을 해 주지 아니하면 到底히 全體로서의 前進을 바랄수가 업다。 따라서 나個人까지도 이웃의 妨害를 바다서 前進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文明한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이웃까지도 가치 文明한 사람이 되도록 誘導할수밧게 업는것이다。 이것을 도리키어 말하면 諸君의 이웃에 만흔 無識한 사람을 두고서는 諸君이 各各, 個人으로 아모리 有識한 사람, 文明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써도 되지 못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諸君은 此際에 「이運動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自身을 爲하야 하지아니치 못할 焦急한 任務다。」하는 一點을 깨닷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듯는말에 依하면 米國에는 黑人種으로도 博士의 學位를 가진이가 적지 안타고 한다。 그러나 黑人이라고하면 그들 博士까지도 包含시키어 野蠻으로밧게 行世하지 못한다。 이 一事는 이環境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雄辯으로 證明하는것이 아니랴。 그러기때문으로 諸君이 有識한 사람이 되려면 諸君의 이웃도 가치 有識한 사람이되도록 誘導할수밧게 업는것이다。

三

諸君中에는 自己의 힘의 微弱을 自嘆할 사람이 업지도 아니 할뜻하다。 即, 當面한 文字普及運動은 이에 世界全人類를 爲한 奉仕요, 朝鮮을 爲한 奉仕요, 兼하야 다른 무엇보다도 自己를 爲한 事業인것은 알지마는 全朝鮮一千五百萬의 文盲을 退治하는 事業에 對한 나 한사람의 힘은 너무나 微弱하지 아니하나고 自嘆하며, 自暴自棄할 사람도 잇슬뜻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이 한방울로 잇슬때에는 微弱하나 방울과 방울이 모히고 모히면 큰 바다를 이루는것이 아니냐. 불이 서냥갑히 끄려 잇슬때에는 보잘것이 업스나 한번 웅기어 붓는날이면 큰 들을 말리우지 아니하느냐. 諸君이 各各 혼자로서는 힘이 그러케 크다고 할수 업스나, 모히고 모히어 그數가 半萬以上에 차면, 그힘은 如干, 一個人의 힘의 五千倍만이 아니요, 實로 萬倍, 十萬倍에 達하는것이다。 一에 一을 加하면 二가 된다는것은 數學的計算에서만 잇는 일이요, 人類社會의 諸般現象에 잇서서는 一에 一을 加하면 그和(答)가 境遇에 따라서는 五도 되고 十도 되고 千도 되고, 萬도 되는 것이다. 보라, 한 사람이 이룰을 해서못하는 일을 두사람이 모이면 單三十分동안에도 할수가 잇지 안니한가。 『큰 나무 한가지 끗에 조고만한 새 한머리가안저서 날개를 펴고 발을 드려서 움직이면 이에 따라서 흔들리는것은 그한가지만이 아니요, 그나무全體에 對하야 그振動이 안가는때가 업는것이다。』 朝鮮을 나무에 비기면 諸君은 조고만한 새다。 한나무의가지가지에 五千머리 새가흐터저 안저 가지고, 날개를 펴고 발을 드려 움직이기를 始作한다。 그힘이 全體로 動하는 날이면 또한 十年二十年을 두고 繼續해 動하는 날이면 이나무로부터 一千五百萬의 文盲이 라는 몬지를 떠러버리는것은 至極히 容易한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이運動의 要諦는 各個人의 힘의 强不强에 잇지 아니하고 모이는 힘과 繼續하는 끈기 如何에 달리엇다고볼것이다。 이러한見地에 잇서서 우리는 이運動의 要諦로 一千五百萬 文盲同胞에게 對하는 『아는것이 힘』 『배워야산다』의 二大標語를 提供하는 同時에 이運動에 參加한 半萬名諸君에게對하야는 『最後의一人까지 最後를가지자』 『모히는것이힘』 『끈기잇게 繼續하라』의 三大標語를 提供하는 바이다。

既定政綱政策은 斷乎實現方針!
一九三五、六年非常時局打開
綱紀肅正、農村對策이 그要綱
新內閣의 堅固한 決心

岡田首相

【東京電話聯合】 岡田內閣의 政綱政策은 二十日 閣議의 審議決定을 기다려 大體同日午後四時半頃에 發表하기로 되엿는데, 同政綱政策의 骨子는 左와如하다

一、一九三五、六年의 非常時局을 目標로 外交國防工作의確立
二、財政均衡의確立
三、官紀綱紀의 徹底的肅正
四、敎育의革新、思想對策의確立
五、農村對策의樹立

等으로 거여· 各方面의 政策에亘하엿는데 詳細한點에까지 抵觸되여잇고 特히 官紀綱紀의肅正을 力說하야 岡田內閣은 一次 此를天下에 發表하면 斷然 議會政治確立에 對하여도 言及하엿다 이 政策의 實現을期하야 現下의 非常時局을 克服할方針이다

及後藤內相藤井藏相을 식혀 擔當케하며 後者에는 諒解를求할터이고 絶緣對策에는 床次、町田兩相이 擔當하야 專혀政策實現에 努力하기로되엿다

政府陣容整頓으로 豫算編成에邁進
對政友會策도 講究

【東京電話聯合】 岡田新內閣은 組閣에 四日을 費하야 政務官決定에 十二日을 要하야 陣容이 整頓되엿슴으로 今後는 成立의使命인 一九三五、六年의 國際危局突破工作인 國防國策을 爲主하는 政綱政策을 決定하야 天下에 發明하는同時에 右政策을實現식힐 豫算編成을 急히하야 岡田·政策實現에 邁進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政府는 이것을實現키 爲하야는 必히議會에서協贊을 바들必要가잇지마는 今番의閣僚並政務官詮衡에잇서서 貴族院의空氣를惡化식히고 特히衆議院에絶對多數를 占領한政友會를憤激식혀 全然 絶緣狀態가되엿슴으로 이를緩和식히든지 或은正面衝突을 하더라도 萬全의 準備를할必要가잇다 그럼으로 前者에는 貴族院出身의政務官

二十日中外에聲明한
岡田內閣의 政·綱·政·策

【電通東京電話】 政府는二十日閣議에서今後의時局에處할 新內閣의政綱政策을 決定한後直時鈴木侍從長을通하야 葉山御用邸에御靜養中이신天皇陛下께奏伏하고 午後五時半如左히 中外에 際明하엿다

政綱

今番政府에 大命을拜하고 內閣을組織케된것은 참으로恐懼하기짝이업다 淺才微力이나마 赤誠을 披瀝하야 內로國民의幸福增進과 外로國際大義의顯揚에 努力하야 聖恩에 奉答하기를期한다

생각건대 現在政治 外交 財政 經濟 思想其他各方面에亘하야 極히多難한事態에 直面하엿다 今後中正公明한 各種政策을樹立하야 그實行에邁進할터로 먼저施政大綱을 表明하야 一般의協力을期待한다

政治의 嚴肅公正은 國政에對한國民의 信賴를確保하는 要諦임을信하야 政界를 淨化하고 綱紀를肅正하고 官紀를肅正 하기에 努力하야 中央地方의 情勢에 맛치는 各種政弊를 矯正하야 人心의緊張을 促하고 憲法精神의眞髓를發揮하야 民意暢達을圖코저한다. 國民精神을振興하야 國民思想善化에 關하여는 聖詔의 御趣旨를奉體하야 國體觀念을明確히하며 國民精神의 基本을涵養하야 不穩思想釀成의諸因을 芟除하기에 邁進코저한다

國際平和確立에努力하야 人類의福祉에貢獻코저함은日本의不動한國策이다 그럼으로 政府는 一層列國과의 交誼를 두터히하는同時에 現下의世局에處하야 日本의使命遂行에遺漏업기를期한다

國防은國家存立上必須의要件임으로國際情勢를 考察하고時代要求에應하야 이것의充實을圖謀한다 追後에開催될 海軍軍備制限會議에서는 國防의安全을確保할것을 第一義로 하야 그 公正妥當한 方針에依하야 그實現에努力코저한다

內外多事한이즈음 財政基礎를鞏固히함은 極히緊要한일이라고信한다 元來異常한周圍事情때문에 財政基礎를常態에回復식히기는 前途多難할것을豫期치안되지마는 歲計收支의均衡回復에努力하야 財政基礎確立을爲하야 最善의處置를行한다

日滿兩國의和親은 東洋平和確保에 劃期的基礎가됨을 認定한다 政府는滿洲帝國의健全한發達에協力하는同時에 共存共榮의方針下에 諸方面에亘하야 積極的으로 兩國親善을圖謀한다

行政의 公正과 敏活과를圖하야 그行하는바를 國家의必要와 國民의要望에 適合케하기爲하야 行政機構와 作用과에深甚한注意를 加함必要를認定한다 政府는行政機構全般에 亘하야 그 改善에關하야 周到한考慮를加할것을期하나

國民生活의 安定을圖함은當面의急務로서 經濟事情의複雜化와國際經濟의 特殊的推移에鑑하야 政府의 援護, 施設할事項이擴大될것을認定한다 그럼으로政府는 國民生活의向上安定을圖謀하야 特히農漁山村의經濟的打開에努力하는 一方勤勞者의福祉增進에 最善의考慮를하고자한다 產業興隆에 一層用意하야 資源開發 貿易進展及國民所得의增進을 圖함을緊要하다고認定하야 產業施設의複雜化에伴하야 連絡統制에 더욱考慮하야 內外의 經濟情勢에適應하야 國民經濟의 全般을 抱擁할綜合的政策確立을期한다 日本精神을涵養하고 心身陶冶에努力하야 國民體育의 向上과時勢에 適應할智能啓發에 留意하야 文運의進展을 圖키爲하야 敎育制度와實際와의 兩方面에亘하야 깁히考慮코저한다

發表政綱에主力
聲明後岡田首相談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은 二十日定例閣議에서 現內閣의 政綱을決定하야 速히中外에 闡明한後官邸에서 如左히말하얏다 今日發表한 政綱에附하야는 予는微力이나마 全力을다하야 이대로하고자생각한다 그實行方法은 徐徐히생각하지 안으면안된다 聲明에關聯하야 各種調査會라든가或은會議를開催하지안으면안될會도 생긴다 前番五相會議는前內閣以來의經過도잇고 再開할必要가잇섯슴으로開催한것인데 今後一 回答은더開會할는지도몰으나 繼續할 意思는업다 無任所大臣設置에 關하여는只今은 全然생각치안하나 今後政策을實行하기에必要하게되면或은設置하게 될는지도모르겟다 臨時議會를열가 열지안할가하는問題는 只今은全然白紙로서말할수업다 拓務大臣은近間補充할 意思는업스나 拓務省廢止의 前提는아니다 目下情勢로는 事務를圓滑히하기爲하여는余가 當分兼務하는것이 조흘듯하다 政務官도決定되야 組閣當面의問題는 決定하고 도政府의政綱도 一段落을지엇다云云

異論은업다
具體實現을기다릴뿐
民政大麻幹事長談

【電通東京電話】 民政黨大麻幹事長談 岡田首相의施政方針의 聲明을一瞥하면 十項目에亘하야 大綱을聲明하야 今後各種政策을樹立하야 實行하겟다고 하엿는데 그政策은 中正公明한政策이라고한以上 이內閣의政策은 極端으로나가지 안흘것을看取할수잇다 若槻總裁의所謂中間政策으로 于先贊意를表하고십다 十六政綱모다何人도 異議가업는것으로 特히第一項에잇서 憲法政治의眞髓를 發揮하야 民意暢達을 圖함을 强調한것은 政黨의存在를 尊重하는한개의表現으로 我黨이閣僚를 보내여 이것을援助하게된所由이다 其他各項目모다何人도異論이업다 다만모다抽象的에不過함으로 要는政府가今後具體的政策을 速히樹立하야 實行에當할것이다 我黨은 今後直接又는 兩閣僚를通하야 我黨政策을着着實現식혀 이難局을打開할決定이다

뿌라질新憲法
日字新聞禁止

【東京電話聯合】 日本人移民排斥條項을包含한뿌라질新憲法은去十六日에公表되엿는데右內容은去十九日林駐剳大使로부터外務省에公電이잇섯는데此에依하면 日本이바든影響은移民制限에끈치지안코 뿌라질在住日本人의生活權은 威脅을밧게되고도學校敎育方針改革을縮하야私立學校敎育에國語를採用케하야日本語敎育을根絶식히려는條項即

一、第五條에聯邦權能에所屬하는國家敎育方針의確立에關하여는左記原則에從할을要하게되엿다
第百五十條 私立學校의敎育은國語로써敎授함(但外國語敎育은此限에不在함)

一、無記名株券株式會社의外國人으로써政治的報道的新聞業을經營함을不得하고此種外國人은 右事業을經營하는 株式會社의株主가되지못하고 또政治的經濟的新聞의 責任과 知識的指導的職務를 自國人에게만行함을 不得한다(百三十一條)

는等等으로 從來의憲法에比하여顯著히 外國人의 權利를制限하엿다

「北寧線附近에서의 軍隊行動은自由」
日本側의「事前通告」要請을
英軍司令官斷然拒絶

【天津二十日發聯合】 山海關東軍特務機關長 儀我大佐는 最近天津各國駐屯軍에對하야 滿洲國成立結果 今後國境附近에서行動할 境遇에는 事前에一次通知하기를 바란다는 旨를通告하엿든데 이通告에 對하야 英國軍司令官은 카드간公使와 協議한結果 二十日右要請에 應치못할旨를正式回答하여왓다 英國軍司令官은 義和團事件議定書의條項을根據로『北寧線에서의 軍의行動自由는 右議定書에 基하야 當然한 權限이다 英國政府가 滿洲國을 承認치아니하엿는今後도 自由로行動한다』고言明하엿다 右回答은 各國駐屯軍의 意見을代表한것으로보임으로 日本側當局은目下對策을 研究中이다

赤化本據
北鐵俱樂部에彈壓

【哈爾賓二十日發聯合】 哈爾賓實業廳은 赤化工作의 本據가되고잇는 北鐵俱樂部의法定手續을 루드되管理局長에게 再三要求하엿스나 言을左右로手續을 取치안음으로 드듸여北鐵俱樂部의假閉鎖를 斷行하고蘇聯側의不誠意한 態度에 對하야 猛省을 促하얏는데 北鐵俱樂部는 北鐵附屬機關으로 蘇聯側이 固執하면 滿洲國側은 斷乎北鐵俱樂部를 閉鎖케할모양이다

日本에스토니아間
通商暫定協定

【電通東京電話】 外務省은廿日、日本國과 에스토니아國間의通商暫定協定을 發表할터인데 本協定要旨는 兩國相互間에通商航海及 關稅에關하야 最惠國待遇를하는同時에 若干의例外를規定한것으로 本協定은 發表後三十日만에 實施할터이다 또兩國의一方이 그廢棄를 通告를發하는日字부터 三個月의期間이 滿了되기까지 繼續하야 効力이잇는것이다

中國서 提議하려는
停戰協定廢棄問題
日本도應諾할方針

【北平二十日發聯合】 塘沽停戰協定의 中國代表熊斌氏는 黃郛氏와會見한後 近日北平으로赴하기로되엿는데 中國側消息에依하면 同氏는北上後停戰協定廢棄를正式으로日本側에提出하기로決하엿다고 云하는바右報道에 對하야 北平日本側當局은반드시 停戰協定廢棄에 反對치는안켓다는 立場을取하야 左와如한見解를갓고잇다 아직公式으로나 又는非公式으로協定廢棄의提議를 接치못하다 中國側의 眞意가那邊에在한지 알수업스나公式提議가 잇스면考慮하려고생각한다 元來停戰協定은 戰鬪行動을 中止하는 暫定的協定임으로 情勢가平靜에歸하게되면 協定을 廢棄하는것은 當然한일이다 그러나 廢棄하는以上 右協定에代하야 永久的關係地帶의 日中兩國官憲에依한 治安維持와 交通을 爲하야規定하는 正式協定이締結되여야할것도 當然하다 中國側에其準備가 完成되엿는지여부가 더욱重大하다

總罷業崩壞原因
資本家及當局의協力對抗
재네스트指導本部의軟化
某國領事館도注目

【電通桑港十九日發】 米勞働史上未曾有의 總罷業은開始以來 겨우四日로써崩壞하기에이르럿다 그原因은生活의自由를全然 被奪한數百萬의市民이激昂한結果 資本家側及當局이協力하야電車의運轉, 飮食店의開店을爲始하야 總罷業에對抗하얏는대 總罷業本部는 이大勢에對抗치못하고 드듸어同情罷業는 一切를中止키로된것이다 그리고 當局은이것을機會로 共產黨討伐을行하야 約三百名의共產黨員을檢擧하얏는대 그中에는 日本人數名도包含되여잇다 그와同時에 某國領事館에도當局의눈이번쩍이어 極秘裡에搜査를進行하고잇다

當分間小規模 스트라익은繼續

【電通桑港十九日發】 總罷業解散後桑港與撥仲人夫組合은獨力으로罷業繼續中인데 더繼續할方針인旨를十九日午後 言明하야海運關係勞働者는決코 容易히屈伏치안흘旨를述하엿다 그리고 總罷業은失敗되엿지마는 總罷業前의小規模의罷業은 依然解決되지못하야 當分間鬪爭이繼續될模樣이다

駐米公使施肇基氏
米誌에日本攻擊論

【電通紐育十九日發】 駐米中國公使 施肇基氏는 十九日發行의雜誌노드아메리칸리뷰에極東問題에關한論文을 揭載하야 日本은 아직極東을侵略하려는듯늣버리지안코 特히日本의陸海軍은 軍部以外의流側에服從치안음으로 가장危險한存在가되여잇다는 激烈한 日本攻擊은相當한反響을惹起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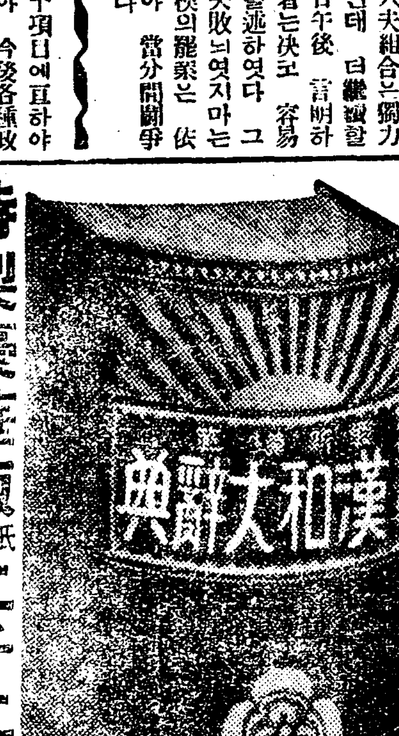
地方長官會議
八月中旬召集

【電通東京電話】 二十日午後閣議散會後 後藤內相은首相官邸에남어서 河田書記官長과가티 政務官選任도끗나고 또政綱政策도決定發表하엿슴으로政務에關하야 協議를한後 同四時半辭去하엿는데 岡田首相은 地方長官會議召集의時期에도 言及한模樣이나 後藤內相은只今各省의準備가아즉整頓되지안함을考慮하야 大體八月中旬頃에 地方長官會議召集을 行할意向인듯하다

三南警見記今日休載

夕刊後의市況 二十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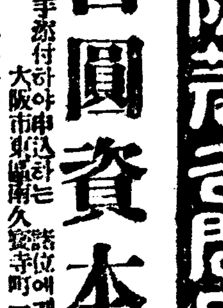
大阪短期新甫 標準生糸後引


突飛無謀의大亂賣
定價三圓을 特別景品付半額提供
단지 壹圓五十錢으로投賣
特製豪華版
總頁數約 二千二百頁餘
紙總クロース金文字入特裝美本 堅牢函入·裝飾的美本
木版革書三千餘個入=內容豐富
辭書界驚異·母子二萬三千餘 보라·熟語解釋無慮十二萬語
本辭書는右記載와如히堂堂二千二百餘頁의大冊, 特上製本으로厚는實로二寸八分이요 內容은가장最新式。當進學校만卒業하고도自由自在로차저볼수잇서實로理想的인辭書。今回一千部限하야至急換金키爲하야破格의廉價로投賣함、殘本, 古本이아님、昭和九年度의最新刊
●申込은至急을要함 近方에계신분은來店實物보신後買上을歡迎합니다。●包何遠近送料二十五錢。代金引換은送料並壹圓九拾錢으로送, 前金으로一時에二冊申込은送料並二圓九十錢, 代引二冊은三圓三十錢에送

大一奮發한大景品
山梨水晶認印 (丈一寸二分徑三分 上等皮サック入)
御姓名彫刻付
『朝鮮日報』愛讀者라고明記
東京神田小川町二丁目 振替東京一五〇四 積文堂特賣
無代進呈

百圓資本
內外文房具問屋 イチヤ商店
電話 振替大阪

大阪著名問屋案內


優良器具 送料共一圓也
木手器具 理髮器具 建築金物 諸打刄物 家庭金物
가장큰 卸問屋 大阪第一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宗刄物本舖 大野合名會社 振替大阪九一三九番 電話船場四四三五番

秋冬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大阪市北區空心町一丁目
(限商店送呈) 河村善商店

各種蓄音器及 蓄音器附屬品卸賣
同業者에限하야 聯絡進呈함
各種 蓄、音器 サウンドボックス 其他各種製作 卸問屋
大阪市東淀川區中津濱通三丁目 吉田商會 振替大阪六三四八六番

現代科學의精髓
梅毒 胎毒 沃素療法
六〇六號、水銀等의 不備를補하고、最新醫學과 數十年經驗의 精華한 沃素劑
最新沃素劑
시원히 삭어 梅毒을排除하는

毒掃丸
重症用毒掃丸의適應症
急性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遺傳梅毒、梅毒性內臟疾患、胎毒、惡性여드름、梅毒性류마치스、梅毒性眼病、冷毒。
(全國藥店에有)
東京 本舖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山崎 瘡滅散 定價

東海岸을다고젓고

독방의대현은 그출생이 우연함이 아니엿다 사백년 이켠의날긴 자취가 오히려오늘에도 만히남어잇서 지나간 성현의 성해(聲咳)를후생으로 하야금 바롭케한다

東方哲人栗谷先生 婆娑의첫우름遺跡

옷깃을간주리고影幀에參拜

第十篇靈地聖跡=申敬淳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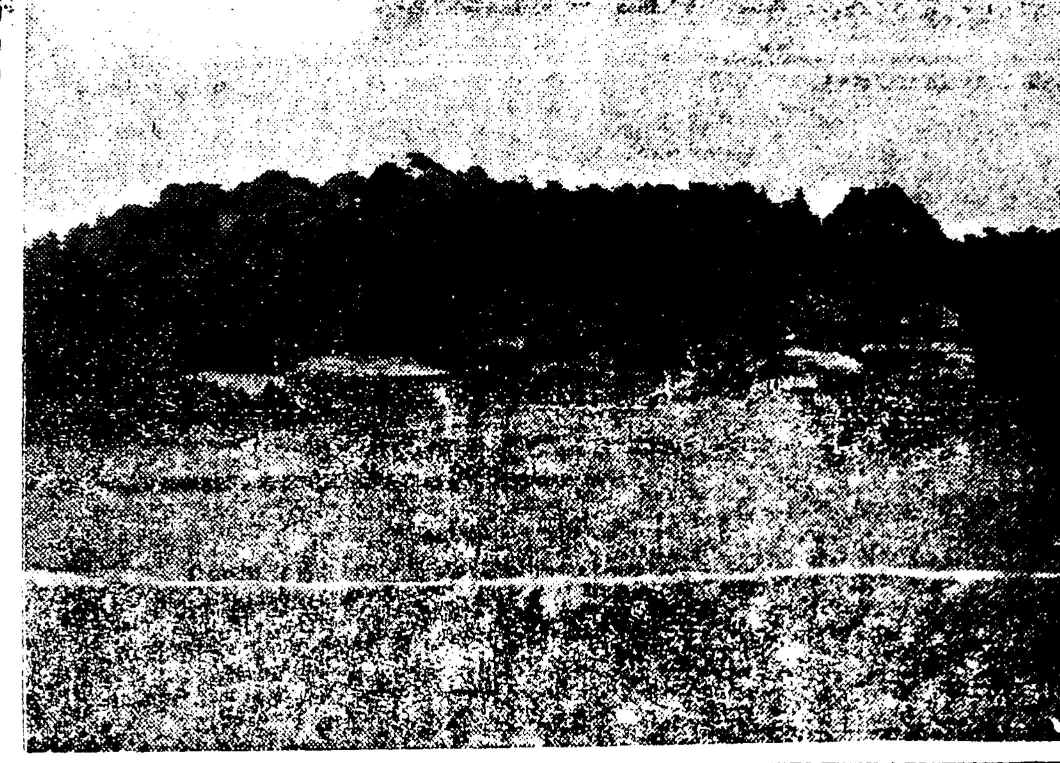
【李栗谷降誕地】 경포대에서북으로나와 신작로를 조금가다가 다시이것을 내여버리고 북으로 강릉군 정동면(丁東面)사무소를끼고돌아 약십리쯤가서 자동차는 락락장송이울창한 송림아래래고(太古)와 가치고요히 노인고색창연한 건물압헤서 「엔진」을 멈춘다

조선의태임태사(太姙太姒)다는 별명을듯는리조 오백년간에드문재덕경비한 현부인 신사임당(申師任堂)이꿈에룡을보고률곡을회임(懷姙)하섯다는몽룡실(夢龍室)그바이곳률곡의강탄한방이다 몸채건물에서 외인편남쪽으로떨어저잇는 조그만 건물로 그것은 마루가두간이나 되는둥 은데비하야 방은따만 간반밧게아니되는조그만것이엿나

령지의 성적이라 지금불어잇는권씨(權氏)네 문중에서 이영원한자취를 도한영원히 보존하는뜻으로 깨끗이 도배하야보존하얏나

문을열고 드려다보매 임진란(壬辰亂)의 큰병역을 미리깨닷고 병비(兵備)를 력설하다가류서애(柳西厓)의 깨닷지못한 반대를보고 개연히마음을 돌려멀리림진강人가히석정(花石亭)을세우고 후일파천(播遷)의밤을밝히든 대철인이이곳에서 사바(娑婆)의 첫울음을 울엇든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신비감이저절로난다

(사진은율곡선생존영과구탄생지)



우편으로 의롯하면 어제각(御製閣)에올러선생영정(影幀)에잠배하고나와 진주인 권오셩(權五晟)씨의 인도로 선생이쓰든유연(遺硯)과 겨몽요결(擊蒙要訣)의원본、선생이 손소 그초한것과 밋선생의 손으로쓴「논문서」를 보앗다 이것은 선생이 마려(萬曆) 칠백십이월조이일에그외조모(外祖母)님을위하야 위답(位畓)을 사서산소에부친것으로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관직함아래 서명(署名)하고화압(花押)을둔것이엿다

그모당사임당의 필적은 따각엿든데 실물호사가 비동(秘藏)하는등하얏고 선생의 필적은 차자회회어정성이 어려엇다 정위와교목(喬木)송림는 선생이잇든때부터 잇서오는것이라는말을듯고 눈은더욱 숭엄으로끄을렷다 선생이 여덜살에지은경포대상량문(上樑文)을맛버못읽음이큰유감이엇다

永同農組事件 十一名判決

◇最高四年役言渡

영동농민조합사건의관계피고 장준(張浚)등 열한명에 대하야 이십일오후두시반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야(小野)재판장으로부터 징역사년 내지일년반의체형으로 판결언도하엿다 일심판결에 장준은 오년간집행유예이엇섯는데 이번에는 이년징역선고를바덧다

姓名	覆審判決	一審判決
▲張浚	二年	二年 (五年間執行猶豫)
▲崔判興	四年	四年
▲秋敬善	二年半	二年半
▲孫順興	三年	三年
▲金台洙	三年	三年
▲金斗洙	二年	二年
▲金容瓚	二年半	二年半
▲李義謙	三年	三年
▲閔工鎬	一年半	一年半
▲崔龍根	三年	二年
▲閔元植	二年半	二年半

이가운데서 장준에 대하야는 검사의공소 최룡근에 대하야는 피고의공소가 각각리유가 잇다고인정하엿고 그밧게 다른피고인들은 공소의리유가 업다고인정하엿다 그러고 공소의리유가 업는 피고인아홉명에 대하야는 원심미결통산 일백오십일 이외에복심미결구류일수삼백일만을 가산하야 언도하엿다

水銀治療타 二名이死亡

매독고치다가

양평군 양서면양수리(楊水里)삽십이번지 농업손기봉(孫己奉)(三六)과 그안해 고씨(高氏)(三六)의 량명은 지난오월경부터매독에걸려서고생하다가지난십사일에가튼동리삼백오십번지호농리순재(李淳采)(三五)에게서 수은(水銀)치료를 바덧는데 그만중독이되여 고씨는십팔일오후 여섯시경에 남편은이십일오전두시경에죽고마럿다

이일을탐지한 양평경찰서에서는 치료한리순재를 체포하려고이십일아츰여덜시경에그의집을 습격햇드니 그는의외의그날새벽두시경에 이일로인하야 책임을늣기고 독약을먹고 자살해버렷다고한다

汽動車에切腕

십구일밤 여덜시쯤에 시외동세교리(東細橋里)지천돌(池天乭)(一六)은 그동리부근에서 그곳을 지내가든 긔동차에 치어서왼편팔이절단되엿다한다

成服後藥方文

五百廳員身元調査 任官系統을檢討

照魔鏡面에現映될것은?

京城府常任委員會서

경성부회원 상임위원회의 경성부정조사회는 이십일 오후두시이십분부터 경성부청 사층위원실에서 역시문츄구지닷고 열엇는데 첫날은우선 권청원의신원보증(身元保證)을먼저의일히검사하야 보증이든든치못한 리원은그보증을새로밧기로하고원산(遠山)비서계장을불러다가오백여명리원의신원보증철(綴)을 올려나가 일일히 조사하얏다

그조사회가중간쯤갓슬때에례의염천교(鹽川橋)국유지의대부권을 귀대부자태전정조(太田政助)씨에게갱신식인다는것에 대하야 삼(森)내무과장 으로부터 의원회에 그갱신하게되경로를보고코자하매의원들는그갱에대신하야 위원회의의견을채택(採擇)치안코 그저보고만한다면굿하여들을 필요가업다고 하여삼 내무과장으로부터 『여러분의의견을 채택하겟노라』는다짐을 밧고보고(報告)를들은결과 래권씨에게 갱신식인다는 것이므로위원들은 심히흥분하야 그것은될수업는 일이라고 반대하야장내는 심그럽는중 이달(伊達)부윤이 이것은보고만할것이지 채택을 바들것이업다고하야 갓득이나 흥분되엿든 위원들은이말에 열화가뗘올라 노호대규(怒呼大叫)하야적적한 랑하(廊下)에까지 소리가요란히 울리엿다일파란을 격고난다음 위원들은일이이쯤되매권일과가치연경(軟硬)의구분이업서 다들 흥분하야 긴장한안색으로 신원보증의 채사와 아울러부리원들의 채용관계를 일일히조사하기 시작하얏는데 철함한호경성부의 인사행정내용이 이조사를따라서 백일하에 드러날터인바 과연그만큼철처한조사를 위원회에서 할는지 못할는지가장주목을 끄으는바이다

鍾路에狂人騷動

이십일오후세시경에 시내 종로네거리화신(和信)백화점압헤는 나히삼십사오세가량의 남자정신병자한명이 나타나서 오고가는뎐차를 모다정거식이고자동차마다「스톱」을 식혀 왼시판은 혼란하얏는데 이것을 경관이가서 쪼치면 조곰잇다가도오고도쪼치면 또오다가 나종에는백화점에드나드는 끔게차린 아가씨들에게까지 달려들어 치마자락을잡어다린다 손목을 끄은다하야 『에로그로』를보이여 마츰내 동일곱시경에 이르러서는 할수업시 질서구두마에 결박을하야 실어가지고 소관종로 경찰서로 데려갓섯다

그러나 동서에서도 성한사람과달라 손을대일수업고 보호류치로 류치를식히려도 긔신이진흙투성이가되여 그것도 할수업고 자긔집으로 돌려보내자하나 주소와성명을 도모지 알수업서큰두통으로 뒤가에서 밤을새이게하얏다

南原地方大豪雨 浸水家屋五百戶

南原谷城間에汽車는不通

災民은廣寒樓에避難

【南原支局特電】 지난십팔일부터 사흘동안홍수가 계속하야 령천강(蓼川江)이 범람되어목하 읍내는 침수가옥백여호에 달하엿다

당시소방대와 경찰이 출동하야 방금 방수작업을 하고잇는중이다 읍내로부터 오리가량되는조산리(造山里)초락은주민전부를 광한루(廣寒樓)에 수용 하엿다 기차는남원곡성(南原―谷城)간이 불통되어 중간에서 그대로 서서잇는중으로 오늘밤까지 비가 끈치지 아니하면큰홍수를면치못할것으로일반주민은전전공공하고잇다

郵便車轢人

이십일오후아홉시십분경 시내고시정(古市町)십사번지 압에서 경성우편국으로부터 룡산우편국으로향하야 질수하든 경성우편국의 제십칠호 체송자동차와 엽길로부터 자전거를타고오든 이십사오세가량의 조선청년이충돌되엿는데 그서슬에 자기청년은 머리를 길바닥에부드처골이튀어 나오고 중상혼도하엿다 피해자는 즉시부근 도전(稻田)의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은알길이업고 원긔 체송자동차의 운전수는경성우편국원속의림인학(林仁鶴)(二八)이라한다

斷食二十一日間

長篇의宗敎論文을起草中

그後의吳東振消息

경성 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오동진(吳東振)은 이십일저녁까지도 여전히 단식을계속하고잇다는데 형무소의 말을드르면 꼭삼십이일 째라한나 그는단식을시작한뒤로 종교(宗敎)에 대한론문을 쓰기시작하야 방금집필을 계속하고잇다한다 그론문의내용은 예수교(耶穌敎)에 관한론문인데 상당히 장편의론문이 작성될모양이라하며 혹은현실사회사정에 대조하야 종교의 힘으로는 이사회의 결함을보수할수 업스리라는 관점으로새로운종교관(宗敎觀)을전개하게될는지도 알수업다 한다

그는 월여동안이나 밥은먹지 안코물만 마시고잇는데 몸은무척쇠약해젓스며 감방안에서 누어잇거나 안저잇거나 그것은그의자유에 맛겨두고 잇다한다 형무소당국에서는 만일을념려하야매일 형무소의원으로 하여금 그의신변을 경계시키고잇다 그가 단식을결행함은 어떤각오를가지고 하는것이며 론문을쓰고잇는것은 그것으로 그의최후의 유언(遺言) 대신으로쓰는것이 아닌가고 관측하는편도업지안라고한다

坐臥自由는許諾

宗敎的動機以外無理由

三輪庶務主任談

오동진이 단식을계속하고 잇슴에대하야이십일오후에경성형무소삼륜(三輪)서무주임은 다음과가치이야기하엿다

오동진의 단식은 순전히 그의종교적신앙에서 하는 것이오 조금도 불순한동기로 하는것이아닙니다 론문을 쓰겟다하기에 지필을주어서 방금쓰게하고잇는데 예수교에관한론문입니다 그론문가운데서 장차예수교를 반박하는 리론이 나올는지도 알수업습니다 감방안에서 눕고일어 안는것은 그의 자유에맛겨둡니다 혹은 오동진의 이번단식결행에 대하야 외부에서이상히 생각하는이도 잇는모양이나 조금도 오해할것은업습니다

하고그는 일부러힘을 드려변명을하면서 무슨형무소에 불평을 가지고 단식을하는 것이아닌것을극력으로변명하엿다

夏休! 歸鄕에밧분學生群!

뜨거운 여름 방학이 되엿스나 도회에서 해방된 학생들의 무리! 무리! 도회에서 해방된 그들은 시골로 산으로 바다로 진군(進軍)을 시작하다 그리하야 시내의 각 중등학교가 일제히 방학하엿슴에 일시에 경성역으로 은 학생의 인파(人波)로 대혼잡을 일우엇다(사진은 어제밤 경성역구내)

疑獄의불길은 徵收、地方稅係로

夜間도不拘코又復府吏一名引致

本町署員徹夜活動

금번에다시 폭로된 경성부위생과의 의옥사건이 동회계과대야(大野)를검속함으로써사건이회계과에까지 옴겨가게된 석간의보도한바어니와 이십일오후 이래사건당당의 본정서에서는 종일긴장하야 야간에는 사법계의출입문을 밀폐한채 그동안까지검거한 관계자를취조하는 중인데사건은또다시확대되여전징수계(徵收係)의〇도〇랑(〇島〇郞)과전지방세계(地方稅係)의하〇〇일(河〇〇一)두사람을이십일밤안으로 소환하게될는지도 모르는형편인데 과연 동열시반경에 전촌(田村)형사부장이 모방면으로부터 다시한명의 새로운용의자를 인치하고 계속취조를 진행하는중이다 이것으로써 사건은 일단의진전과 확대를보게된것이다

裵東健等三名 二十三日判決

간도공산당원배동건(裵東健)김병남(金炳南)리웅걸(李雄傑)등세명에대한 판결은 오는이십삼일오전아홉시에 경성 지방법원에서 언도하기로 결정되엇다

十三歲少女를 不良學生이暴行

被害少女는負傷入院

이십일 오후네시경에 시내효자동(孝子洞)〇〇번지 김치선(金治先)=假名=의딸 순자(順子)라는열두살된 소녀를 그이웃에사는 ×백구십오번지 시내××고등보통학교 학생박일덕(朴一德)=假名=이라는 열아홉살된소년이 꾀여가지고 자긔집으로데려고가서 폭행을가하야 부상식힌것을 피해자가나중에 청운동(淸雲洞)파출소에가서 고발하야 동소에서 곳 가해자를검거하야 본서로데려다가 일단취조한후 류치하고 계속취조하는한편 피해자는즉시 의전병원(醫專病院)에 보내어 치료중인바근자 학생풍긔가 날로퇴패하야저가는 남어지 이와가튼사건이발생한것은더욱 놀날만한현상이라하겟다

運動競技

東京留學生對 全京城蹴球戰

今日京城球場서

渴望의東京留學生蹴球團 待望의東京留學生蹴球俱樂部歡迎戰은 이욱고今二十一日午後四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壯快한幕이열리게되엿다 東京各大學蹴球部의重鎭으로組織된留學生軍은 지난十二日大邱에到着以來 合宿練習을繼續하며 더한層技術의完璧을期하여 技巧한패스워크올武器로 大邱에서 醫專、啓聖兩軍을快勝하야未知數의强味를 뒤우고잇스며 이에應戰할京城軍은斯界의俊銳들로編成된 强豪이니만치 兩軍의對戰은 今夏마즈막을裝飾할意義잇는激戰이 展開될것으로期待된다 當日은一行의旅費에補助하기위하야 入場料一般二十錢과 學生十錢을밧기로되엿스며 兩軍의出場멤버는다음과갓다

	【留學生】	【京城軍】
Q·K	金浩實、李永二	宋基宇
R·F	金正浩	邊洪錫
L·F	金敦植	金寅業
R·H	南英澤	金日培、李奉錫
C·H	文右伺、崔成明	金元謙
L·H	吳勝律	金炳熙
R·W	金昌錫	金化集
R·I	李榮善、李萬吉	吳潤煥、李鍾求
C·F	朱鳳德、金在弘	李榮敏、金永根
L·I	崔永國	金容植
L·W	李洪禾	崔容任

排球大會

廿二日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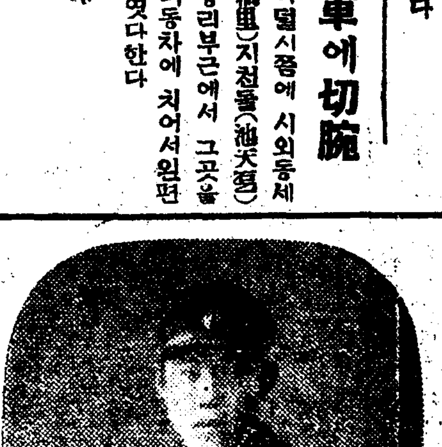
日本排球協會 朝鮮支部主催의 第二回排球大會는 來廿二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庭球코ー트에서 行할터이라는데參加팀은中等部六팀 女子部七팀 男子一般部三팀、女子一般七팀合計廿三팀에 達한다고한다

今日의運動

▲立敎大學對 龍山鐵道野球戰은午後二時부터京城球場에서

무거운머리가 漸次로가벼워젓습니다

宮城縣本吉郡 河本政市



나는某學校三年生인데 우리學生에게는 試驗때에 記憶力이 가장重要하야 이것을增進하는것이 必要하거니와 元來頭腦가明晳치못한나는 여러가지强壯劑等有名藥을 服用하엿지마는、그廣告와가튼効果는 조곰도 보지못하엿습니다、여러가지로 생각한끗에、偶然히河北新聞에서 滋養强壯劑로養命酒가 조타는것을알고、곳藥店에서사다가 每日조금식 飮用하엿더니、무겁든머리가 漸次로가벼워지고 무슨소리든지 듯거나 分明히알게되여 매우愉快하게되엿습니다 感謝의 二字外에는 쓸말을 아지못합니다、萬分一이라도恩惠를 갑흘가하고 이養命酒를 널리飮用케하야 우리洞里人의 身體健康을 圖謀하고자하오니、귀치안코 시드래도試飮瓶十人分보내주시기를바랍니다、그러고 一般社會에養命酒의 眞價를알리랴고 합니다 (四月五日受付宮城縣 河本氏姓名은假名)

滋養强壯飮料로……

◇胃腸衰弱한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분 ◇病後回復期의人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虛弱體質가진분 ◇貧血冷病잇는분 ◇强腦强精의目的 ◇根氣薄弱한분 ◇産前産後婦人

信州伊那의谷名産 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廿錢 大瓶 三圓 德用 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에잇습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옵 前金注文은送料弊舖負擔、代金引換은實費를밧습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目하시고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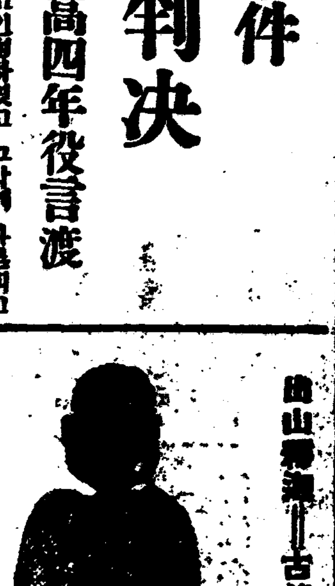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醸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四ノ廿二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電話澁谷六八五五番 振替東京六八五三九番

小瓶進呈 意外일만큼好感을주는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葡萄酒보다도맛잇다는것을實物로紹介하기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無料로送呈中이오니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廿二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곳葉書를보내시요

잠만해도 몸이고달퍼서 조름이오는사람이 根氣를强케하면

썩재미가나서일이잘된다



鳥山獅道=古代木彫 信州養命酒傳來

三千年前에、天竺의王子로 태어난靑年悉達多는、人生에「老病死苦」의잇슴을 悲觀하고、宮殿을出하야 深山의樹下石上에서 沈思하야 覺을得하엿다고하거니와、今日우리는、悲觀하지안코 研究를하여서、健康하게生活하야 人生을즐기고 幸福과成功을 求하여야한다

머리 가흐리멍텅하고몸이고달퍼서、조름이 꼬박꼬박 오는사람은、일하기아조 괴롭고 억지로讀書할지라도 理解와記憶力이업고、이래서는안되겟다고、일을하여도、能率이업슬뿐아니라、錯誤가 채翌日의 일을對하며、胃腸이弱해서身體가衰弱하고、精力이 만아서 어찌할길이 업거니와 왜조름이 오느냐하면

精根 이疲勞한때문이니、心身을過勞하야 神經이衰弱하고、睡眠不足으로、疲勞를 回復치못한 이逸脫하여서 補給을못하는때문이다、이러한사람들에 滋養强壯劑로 養命酒를愛飮하면 根氣가 조화지므로 經驗上

이만 큼조흔것은 업다고조차한다。이것이世上에 所聞이 나서 益益愛飮家가 만히지거니와 特히 일로부터 머리가흐리멍텅하고 무겁기잘하는 梅雨季、身體가고달퍼지는 暑中에어느분이다 한번 은잡수어보십시오、머리를끄덕하고首肯할것입니다。

極度로 尖銳化하는 漢川堤防係爭
實地檢證後處致方針

【淸州】 제방을 사이에두고 서로대안편 막느니 트느니하여 서로리해관계가 상반되는 청주군군남면당북, 구탄(塘北, 驅灘)양동리주민들과 보고, 신보(保古, 新保)양동리 주민들사이에 서로진정을하며 흑은정면으로충돌되여 감독관청에서도 여하히 처단하여야될는지 천연대책이업서서 일대두통거리로 역이는 한천제방(漢川堤防)사건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 보고, 신보 (保古、新保)양동리 주민들은 지난십륙일 청주군청과 충남도청에 한천제방 방축(防築)언가 신청은 제출하는동시 배공식으로제방을 일시막엇든바 이를당지 탕북, 구탄(塘北, 驅灘)양동리주민들은 이방천을막으면 자긔들토지 사십여정보는 전연수해로 황무지로 되리라는것으로 농구를 가진채로 사오명식도청문권에서 인가치말기를 애원진정하는동 사건은 전연청에회하여갈뿐인데 도토목과 책임자의 말을들으면 함흥토목관구(咸興土木管區)에위촉하여 실지검증을한후 인가여하를 결정하겟다는의견이라한다

練光亭江岸에 疑問의漂着死體
解剖結果他殺로判明

【平壤】 십오일아츰에집을나간채 행방불명이되엿든 긔림리석진공 지응진(池應鎭)은 십칠일 오정십시경 평양부내 련광정(練光亭)아래 대동강안에 의사체가되여 표착되는바 머리와 좌우눈우에 골절(骨折)과 피부파렬도 타살의혐의가 농후하여 화긔(和氣)평의전교수가 해부한결과 석괴(石塊)나 흑은곤봉(棍棒)가튼것으로 구타를 당하여 골절이생기엇고 물을먹지안흔것으로 추측하야 타살로확정되여 평양서에서는 범인수사에 대활동을 개시하엿다한다 그런데 피해자인 지응진(池應鎭)은 성질이 온유한자로 십오일아츰에 집을나와 일러인 부내경상리(慶上里)에 왓지만 비가나려 일을할수가업서 집으로도라간다고하며 그곳을 떠낫다는데 그는술을먹고 실족하여버랑우에서 떠러저대동강에 빠질 그럴사람은아니라고 하는데 압호도문제가어떠케귀결될는지매우주목된다고한다

本社讀者優待

【金堤】 사계의명극단으로서 방금남선지방을 순회중인 경성단성사의직속인 신무대는호남지방인 군산 전주 이리 광주등지에서 대인긔를밧고 방금목포에서 흥행중에잇다는바 본보김제지국의 초청에의하야 오는이십삼일 부터 김제극장에서 단연묘기를 발휘하리라는데 본보김제지국 독자에게는 특별할인이 잇스리라하며 벌서부터일반끽객의 인긔는 집중되여잇다고한다

國島探勝團募集
第一, 第二兩隊로分發
東海岸絶勝
……本社安邊支局主催……

【安邊】 본보안변지국에서는 취월염천에 장마와 더위로터부러싸우고잇는 군내인사들과 단하로동안이나마 서늘한 바다가운데에서 유쾌히 소풍하기위하야 동해안(東海岸)절승지인 국도(國島)탐승단을 모집 하기로한바 국도를가보지못한분은 거의다가게되겟슴으로 번잡을 피하기위하야 탐승단을제일대(第一隊)제이대(第二隊)로 나누어 제일대는 오는이십이일 아츰팔시사분차에 떠나게되엿고 제이대는 그다음일요일인 이십구일 아츰역시팔시사분차에떠나게되엿는데 회비는매일인컨 일원오십전식이며 두대가 다그날로도라오게된다는바 국도에 가려는분은 만원되기컨에 신입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河星坡書畫展
咸安支局主催

【咸安】 김완당(金阮堂)선생의 고제로서 당대서법대가로명성이자자한 하성파(河星坡) 선생이 금번함안지방을 순유하게됨을 긔회로 본보함안지국주최로 좌긔와가티 서화전람회 (書畵展覽會)를 개최하는데유지제씨는 만히래참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時日…七月二十二日 (舊六月十一日)
▲場所…郡北公會堂(舊面所)

賭博場에서 格鬪끄테殺人

【光州】 지난십오일이십삼일오후일곱시경에 광주군림곡면(光州郡林谷面)등림리의연성대(延成大)(二五)은라주군삼도면송학리(羅州郡三道面松鶴里)정모 (鄭某) 의방에서 동리사는 서대수(徐大洙)(三〇)와도박을하다가언쟁끄테 대격투가이러낫섯는데 동면동리서금동(徐今童)(二三)이 가진곽서대수에 가담하야 좌우돈차에 선성대의이 (齒) 네개를절처 시켯든바 지난십오일에 그로인하야 사망하엿다는상해치사사건을탐지한 소관 라주서에서는 시체를해부한결과 처사로판명되여 서대수를 가해자로 체포하엿스나 서금동은아즉잡지못하야 백방으로 수사중이라한다

碑石幼稚園
同情素人劇
廿一日於港座

【鎭南浦】 진남포비석유치원건축비를 보충할 목적으로신구일개최하려든소인극(素人劇)대회는 장소관계로 이십일입극장항좌(港座)에서 조선중앙, 동아조선 삼지국후원하에 개최하게되엿는데 소인극은 진남포에서 처음보는시험으로각본으로도채밀근(蔡密近)씨작인 「고향을찻어서」를비롯하여인정극맷가지로 배우들도 극에숙게에상당한소양을갓고잇는오대감(吳大鑑)외 남녀사십여명이 출연할터임으로서황을예긔하는바입장료는 백권의원, 청권칠십전이라한다

貸金業家襲擊한 二名의少年强盜
馬山署員에게就縛

【釜山】 지난십삼일새벽두시반경에 창원군구산면가포리(昌原郡龜山面架浦里)대금업(貸金業)길야문길(吉野文吉)(五二)의 집에 강도두명이 식도를들고주인부부가 자는방에들어와 금품을 강요함으로 소재가업다고대답하엿든바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이업단말이 웬말이냐 돈을안내다면 두부부를 이칼로찔러죽이겟다고 협박함으로 할수업시 현금삼원을 주엇드니 돈이적다하야 한명은 바갓을경계하고한명은 단스를들추어 현금이원과 창고열쇠를 가지고 나가창고에서 현금십오원과 쌀너말가마니를 질머지고 약한시간이나시달린후 도망하엿다는 급보를바든 마산서(馬山署)에서는범인체포에고심하든바 십칠일오후 여덟시경에마산부대정(馬山府大町)에서량명을 잡엇다는데 범인은 동정 삼백구십일번지 함정생(咸正生)(一八)동 사백이번지심오초(沈五初)(一九)의 두명의 소년으로 방금마산서에서 강도의 원인과 범행의동긔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地方人事

▲金秉奎氏(本社安州支局顧問) 熙川方面商況視察次本月十八日出發
▲任昌鎬氏(日本生命保險平壤出張所長)新任人事次 十八日本社平壤支局來訪

鎭南浦
碑石幼園素人劇大會
▲日時 七月二十一日밤八時半
▲場所 港座
◇主催 鎭南浦碑石幼稚園 鎭南浦碑石엡웟靑年會
◇後援 鎭南浦保育會 東亞、朝鮮中央、朝鮮三支局

木浦
全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七月二十二日午前九時
▲申込期限 七月二十一日
▲場所 木浦商工會議所横新코트
▲申込場所 木浦朝鮮棉花會社內庭球部
▲賞品 優勝旗及副賞、賞狀
◇主催 木浦體育協會 木浦運動協會
◇後援 朝鮮日報社木浦支局

咸安
河星坡個人書畫展
▲時日 七月二十二日
▲場所 郡北公會堂
◇主催 朝鮮日報咸安支局
◇後援 郡北協同組合

林巨正傳 (511)
洪碧初 作
安碩柱 畫

결의 (三의十)

선봉(先鋒)으로오든 우병방이 아우성을 듯고 군사를 뒤로돌리자 후진에오든 좌병방이 아프로 쫏차왓다 좌우병방이 서로 의론하고 급히 활가진 군사를 뽑아내서 길좌우편 아우성나든곳을 향하야세우고활을 쏘이엇다 시위쏘리는 한동안 요란하얏스나 살떨어지는곳에서들은 출꼿 아무긔척이업서서 좌우병방이 긴장한 장교 수십명을 골라뽑아서 좌우편 질여을 나가보게하얏다 장교 두떼가 각각 헤든군사들을 압세우고 길까의 풀섭을 헤치고 들어가는중에 바른편에서는 난데업는 화살이 날려나와서 장교가 하나 맛고 둘 맛고 셋 맛자 여러 장교가 와하고 도망하야 나오고 원편에서는 한참이나아무쏘리가 업더니 나종에 장교들이 아이쿠 자이쿠하며뛰어나왓다 장교너덧은 한편눈을 또지못하는데 눈알아니면 눈짜위에 대꼬창이가 꼬치고 장교서넛은 목을 틀리지 못하는데 뒷동시나 뒷덜미에쇠꼬창이가 박혓섯다

안성관속들은 길막봉이의 초사로 청석골 두령인물의 성명과재주를 대개다 짐작하는터이라 좌우병방이 대꼬창이와 쇠꼬창이를 보고

「청석골 회적패에 박가성가진놈이 무슨창이라든가 줄안에 드는창을 백발 백중 잘친다드니 그놈이 왓네그려」

「그놈하나만 왓겟나 돌풀매두 오구 쇠도리깨두 오구 천하명궁두 오구 천하장사두 오구 떼거리가 다왓겟지」

「양주 백정의자식 꺽정이란놈은장사구 경계이라데」

「우리안성 큰날리낫네」

좌우병방이 서로 짓거리는중에 나이 지긋한 장교하나가 회살맛고 겨우 도망하야 나온 젊은장교 셋을 다리고 아페와서

「이것들좀 봅시요」

허고 살마잔자리를 가르쳐는데 셋이 독가리 인중이들려고 압니들어 들어갓섯다

「상처가 우연이 가튼가 야니겟지」

「천하명궁의 솜씨세」

「여긔엇지말구 웅으루 올이가세」

「얼른가서 울에나 못들어오게 방비하는것이 상책이겟네」

좌우병방이 울내로 들려가라고 분분히 군사의대오(隊伍)를 정돈시킬때뒤에서 함성이 닐어나며 회적한떼가 후진에 달녀들엇다 좌우병방은 급히 군사를 회동하야 선봉을 후진으로 후진을 선봉으로 뒤꾸며가지고 회적떼를막는데 길좌우편에 숨은회적이 내달어서 압뒤로 공격할까념녀하야 활가진군사들은 따로 남겨서 길량편 풀섬을 향하고 헌장질을 시키엇다 달려드는회적 떼의 사람 수는여남은밧게 아니되나 그중에 나는 장을쓰는데 날새가게비갓고 하나는 쇠도리깨를쓰는데 우악하기가 황소갓고그외에 또 돌풀매질을 귀신가티 하는자가 하나잇는데 우수운 돌풀매가 창이나 쇠도리깨보담 더 무서워서 수십명군사가 잠간동안에 흑면상도 터지고 흑 머리도 깨어젓다 좌우병방이 처음에 화적패의수효가 얼마못되는것을 넘보고 회적패를 둘러싸서 잡으라고 군사들을 좌우로 벌리엇더니 바른편의 숨은 회적이 소리업시 바른편 군사들뒤에 와서 별안간 아우성을치고 대어들고 원편의 숨은회적도 마저 원편군사들뒤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대어들어서 좌우편 대오가 어지러워지자 중간 진도 딸하동요되엇다 끗장을 치러보지못한 군사들이라 한번 동요된뒤에는 다시 진뎡되지못하고 마침내 일시에 허터저서 도망질들을 치는데 좌우병방은 어느름에 활가진군사들과 가치 압서도망하얏다 도망하는뒤를쫏든 회적들이 윤내력밋까지 와서 더 쫏지아니하아 좌우병방은 비노소 정신을 차리고 도망해온 군사들을 거두어 모호기시작하얏다

主婦之友

二大附錄贈呈
大評判の八月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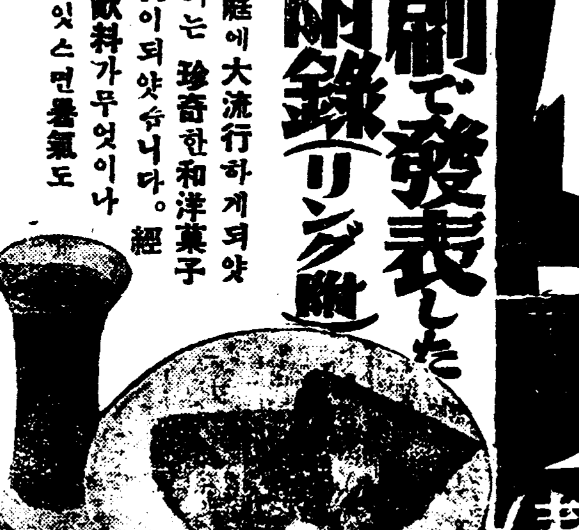
お入つ向き 三百種の別冊附錄

品切되기前에빨이求하서요。

和洋菓子の作り方
(夏の飮物も發表)

實物通りの色刷で發表したカード式大附錄(リング附)

손쉽게되는菓子製法이至今은家庭에大流行하게되얏습니다。조금손결여서道具업시되는 珍奇한和洋菓子製法二百卅種을發表하야 大評判이되얏습니다。經濟的衛生的美味的인菓子와여름飮料가무엇이나됩니다。夏休나避暑에나이一冊만잇스면暑氣도 支離도忘却하고지냄으로大好評



發病から臨終までの秘話 東郷元帥の臨終に侍した看護婦の座談會

이것은至今까지아무데도發表치안흔臨終秘話로東郷元帥의薨去를哀悼한분들의게꼭읽히고십흔評判特別記事

(夏の特別讀物) 海の怪談を語る座談會

가튼怪談이라도이것은異常한바다生活者가말한實식한怪談뿐으로여름讀物로는大傑作이요

開教八年で信徒六十萬 ひとのみち敎の敎祖と語る記

諸般憎苦가忽然解消된다는世評잇는新宗敎『ひとのみち敎』本部의本誌獨特한探訪記로珍寶貴외가티大評判

石鹸を用ひて姙娠豫防する法の新發表 (ヒトト病院長) 馬島僩

斯界의權威者인馬島僩先生이처음公開한秘法 安全 經濟로有效한姙娠調節法으로 大評判이요。

(岡田首相令孃)

鎌倉 建長寺管長(妻帶)と吉屋信子女史(獨身)の夫婦問答

傳統을打破하고妻帶한名僧管長과獨身主義의吉屋信子女史가訪問한夫婦問題一問一答의夫婦和合의秘法

▲娘から見た岡田新首相(長女…萬亀子 次女…美喜子)

父親으로서의家庭的岡田新首相을二人의令孃이發表大評判

▲勅使河原先生 安達潮花先生 夏の生花の秘訣發表會

生花를맨드신분에게縱橫으로有用한秘訣의發表로大評判

▲阪東好太郎と飯塚敏子の秘話

時代映畫의名콤비阪東、飯塚兩人의世間未知의秘密

(阪東·飯塚)

▲夏の開襟シャツの作り方

戶田博士考案한衛生的이고멋잇는開襟샤쓰製法을詳細히發表로非常한評判

▲レース編物手藝の作り方

編物하신분은問題업시되는流行의레ー스編物手藝製法七種을公開하야大評判

◆若い未亡人の生きて行く道 ◆見込まれて良縁を得た經驗 ◆勤人が小商賣に成功の經驗

◆眞夏の婦人清涼着の仕立方 ◆肺尖カタルの家庭療養案內 ◆恐ろしい疫痢の豫防と手當

▲外國美人 夏のお化粧大畫報 の新公開

어엽분外國婦人의佛蘭西式과米國式의조흔化粧法을一目瞭然하게畫報式으로發表評判

▲夏の洋食一品料理十五種

製法은簡單하고맛잇는天下一品의洋食의一品料理로婦人들께大評判

眞珠の帶止 贈呈 (一千本)

葉書一枚로되는大懸賞發表

いよく大人氣の お子樣附錄
色刷三十二頁が大評判

特別附錄 西洋名畫の色紙 四枚贈呈

▲聖母像(ラファエル筆) ▲ねこ(ミュッケェ筆) ▲羊飼ひの女(ミレー筆) ▲水遊びの少女(ベルゲン筆)

世界的名畫四枚를實物대로色刷한縱七寸橫八寸의色紙模様으로맨드러特別附錄。一枚가三四十錢가치잇는名畫로無代贈呈함으로大評判

評判小說 虹の故郷 牧逸馬

雜誌界第一의자미난小說!!

▲白百合屛風…(子母澤寬)
▲一つの貞操…(吉屋信子)
▲受難の生母…(山中峯太郎)
▲子を持つ處女…(川村花菱)
▲突貫花嫁…(稻田早人)

美人國夏の情調 (田中比左良 西條八十)

五十錢 (送料五錢)

主婦之友社 東京神田駿河臺 振替東京一八〇番

產業

移入和紙에對抗 棉莖製紙工場新設
慶南道에서棉作部落을指定코 剝皮精選手工을奬勵

【釜山】棉莖白皮로製紙를奬勵하야 日本各地서 移入되는 和紙約三十七萬貫 九十七萬圓中 約四割을慶南道內에서 自給할計劃이라는데 本道內 昨年度棉地棉作付反別로 推定하야 棉莖白皮産出이 年産六十萬貫以上에達하야 朝鮮紙製造原料를 得할수잇슴으로 新興工場을設置코저 經費六萬圓을投하야 慶南製紙會社를 創設하고 半紙、美濃紙、障子紙、塵紙等 和紙 七萬八千締 産額三十萬圓을 生産식힐 作定이라한다 棉紙製造奬勵는 主로 棉作農村部落을 指定하야 婦女子 手工으로 棉莖의剝皮精選工作에 就케하며 生産品은 農會 又는 産業組合에依托하야 販賣斡旋식히고 原料의蒐集도 식힐計劃인데 國庫補助並 道費補助로 今年中에 密陽方面에 工場을設置하기로 決定되여 製紙業移入商圈에相當한波紋을이르켜 가장注目되는바이라한다.

平元沿線의苹果 移出車賃割引
朝運、鐵道、業者間協定成立

【元山】苹果朝鮮의 販路의擴張―이는朝鮮의氣候風土가普與하는 朝鮮苹果의 大量生産에起因하는것이어니와 總督府鐵道局에서 이苹果의日本內地進出奬勵下에 車扱運賃割引을協定한바잇거니와 이에呼應하야 元山果物同業組合에서는總督府尹技手 咸南道武內技手 朝鮮運送會社營業課坪井氏 鐵道側貨物係主任等의 來臨과 安邊、釋王寺、元山苹果同業組合員等五十餘名의會集下에 德源郡廳會議室에서 日本內地車扱運賃割引問題協議會를 開催하고 車扱運賃에對한朝運、鐵道、苹果生産者間에 圓滿한協定이 잇섯다는데 鐵道局과의契約에 依하면 今年 平元線出荷量은 百噸으로 이에對한割戾는二割八分이라고한다 그런데 昨年度出荷量은 九十七噸이엿고 割引은 二割五分이엿다고한다

平元沿線에잇는 苹果産地로는 元山、安邊、釋王寺、鐵原、月井里等인데 이五大産地에서百噸移出은 어렵지안으리라고한다

元山在庫數量
穀物類大減少

【元山】지난六月末 元山各倉庫의 在庫品을 元山商工會議所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顯著한減少를 呈하고 잇는데 이제減少된것을보면 白米、玄米、碎米、正租、小麥、大豆、胡麻、綠豆等이고 增加한것으로는 粟米의三千六百袋 미역(藿)의 四千五百個이라고하는바 重要한 在庫品을들면 다음과갓다

白米	一、六三一叺	(六百叺減)
玄米	[illegible]叺	(百八十叺減)
碎米	[illegible]叺	(四百叺減)
正租	[illegible]叺	(八百叺減)
粟	[illegible]袋	(三千六百袋增)
黍	[illegible]袋	
小麥	[illegible]叺	(千九百叺減)
大豆	[illegible]叺	(三千五百叺減)
蕎麥	[illegible]袋	
胡麻	[illegible]袋	(三百袋減)
綠豆	[illegible]袋	(四百袋減)
打綿	[illegible]個	(全部減)
肥料	[illegible]叺	
叺	[illegible]個	
藿	[illegible]個	(四千五百個增)
乾明太	[illegible]駄	(三百駄減)
木材	[illegible]個	
雜	[illegible]個	(二百個減)

秋蠶種價引下
全南道에서發表

【光州】秋蠶掃立減少의 原因이 蠶繭價의暴落과 아울너 蠶種代가高價함에잇슴으로 全南道當局과 蠶種業組合間에그동안種種折衝해오든中 지난十七日如左히 決定發表하엿다는바 昨秋의一圓三十錢에比하면 三十錢의減下라한다

現金拂 九十錢
共販期拂 一圓
十一月末拂 一圓十五錢

人絹會社近況(下)

倉敷絹織 同社는 去六月二十二日現會社東洋紡에 合併됨 昭和레욘과함께業界의雙璧으로 指目된會社이니만치 收益力은 依然卓越하다 今年三月에 日本化學製絲를合併하야 合으로 資本金은 三〇百萬圓(其中拂込二〇百萬圓)에 膨脹하얏는바 九年上期에는六、七六三千圓의 利益을計上하야 利益率은 六、七六割로前期에比하야 何等損色이업는 好成績을示하얏다 그러나 도其大한 利益이內面에『리절부』되어잇슴은 日化株一〇〇千株의讓分益만으로도五、五〇〇千圓에達한點으로도窺知할수잇다 이好成績이면當期配當을二割外에 特配五分合併紀念配當五分을하얏다할지라도疑訝할것이업다 그럴뿐만안이라 本下期後半에는新居濱工場의 增設分一〇噸이움즉이어 業績에寄與하는바적지안타 따라本下期以降當社의經常配當은 二、五割로豫想되는바 그收益實力으로보면이를肯定치안을수업다 經常配當이二、五割이면 帝絹의그것과 同率이다 그럼으로株價도最近에는帝絹이나가 興味를끄을고잇는데 事業의將來性 收益實力等으로 判斷하면 亦是前者가낫다

旭絹베룩 特殊된旭絹新工場은 九年上期에움죽이기始作하얏는데第一期分五噸은 三月 第二期分五噸은 五月부터움죽이기始作하얏스나 모다同期의業績에寄與한바는적다 卽同期의利益金은五、五〇三千圓(利益率은三、三九割)로 前期에比하야 二五〇千圓가량增加하얏슴에不過하고 配當도一割에据置되엇다 業績不振의主因이안타 그러나當社의營業能力이 給戰線에其價値를發揮하는것은 人絹工場及벰베르그工場의能力이 더욱增强된後의일이다 따라當社는 尙今發展의過程에잇다고할것이다

日本에온 九年上期의利益金은 前期보다도五〇千圓가량만허 二、二八二千圓으로되엿다 拂込資本金에對한利益率은 五、〇七割이니 一、二割配當을조곰도無妨할터인데 亦是据置로하얏다。이는未拂込金徵收에依한資本膨脹의壓迫을 緩和하려하기때문이다 未拂込金六百萬圓은 九月一日과 十二月一日과에 二分하야 徵收되는바 이는 社內保留金과合하야 同社新工場(目標日産三〇噸)의 建設資金에充當되는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七噸分의建設資金 約一〇百萬圓이 不足하다 (完)

雅蠶飼育實地講習會

【明川】明川郡上雩南面長鄭曾範氏는管內雅蠶飼育이年年不成績함을늣기여今年의雅蠶共同飼育所를新設하고 即時指導技手李銀赤女史를招聘하여 去五月三十一日부터 六月二十九日까지一個月間雅蠶飼育法과 實地講習을한바 好成績을엇고去二十九日에 修業式을同所에서擧行하얏다고한다

上半期南浦港搬入 肥料五萬四千噸
比昨年同期二割八分增加

【鎭南浦】今年一月以來六月末까지鎭南浦港으로부터 搬入上陸된 肥料數量은五萬四千噸 金額三百六十萬圓으로 昨年一個年間搬入된 數量과갓흔대 昨年同期에比하면 二割八分이增加되엿는데 이제肥料種類別搬入高는 如左하다

種類	數量	價格
過燐酸	[illegible]	[illegible]
硫安	[illegible]	[illegible]
調合肥料	[illegible]	[illegible]
合成、化成肥料	[illegible]	[illegible]
加里鹽類	[illegible]	[illegible]
石灰窒素	[illegible]	[illegible]
燐酸아루미나	[illegible]	[illegible]
撒豆粕同粉末	[illegible]	[illegible]
鯷粕	[illegible]	[illegible]
智利硝石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咸南道沿岸一帶 漁獲이極不況

【咸興】咸南道沿岸一帶各漁村은 一年間生活을 거이鰮魚로한다하여도 過言은안인바今年에이르러서는 第一盛漁期인六月에 連日風浪으로 全然出漁를하지못하고 겨하여鯖魚가는大魚의出沒이 만어서漁業에 一大支障이된다는데 淸水産組合責任者의말에 依하면 昨年六月中에는鰮魚漁獲高가十一萬五千圓가량이엇섯는데 今年六月中에는 五萬圓도넘지못한다하며 漁村의細窮民은生活上威脅을바다人心이 極히 不安하다한다

璋興産組設立總會

【璋興】璋興郡의名産인璋興紬、苧麻、栗等의 品質改良販賣統制等을 善導키爲하야去十三日當地公普校 講堂에서發起人加入者合計百二十餘名이 參席하야設立總會를열고 役員選任定款作成을 審議한바會長張大翼、監事金光善外二人 評議員八人이다

全北移秧成績 九割六分七厘

【全州】移秧期가臨迫하야降雨不足으로 一時農村의一大驚動을이르킨 全北의旱災는 奕然去十二日부터繼續된 降雨九十餘미리로 去十四日全北道農務課調査에依하면 道內畓一六九三〇五町步에對하야 九割七分以上植付가 完了되엿다는데이제十四日現在로 各郡植付狀況을본다면 다음과갓다고한다

府郡名	植付濟比例	同上에依한推定面積
群山	一〇〇、〇〇	[illegible]
全州	九九、七九	[illegible]
鎭安	九九、八〇	[illegible]
錦山	九九、四四	[illegible]
茂朱	九九、三八	[illegible]
長水	九九、四四	[illegible]
任實	九九、七七	[illegible]
南原	八八、一六	[illegible]
淳昌	八八、八五	[illegible]
井邑	九九、九七	[illegible]
高敞	九九、七〇	[illegible]
扶安	一〇〇、〇〇	[illegible]
金堤	九九、九七	[illegible]
沃溝	一〇〇、〇〇	[illegible]
益山	一〇〇、〇〇	[illegible]
合計	九九、六七	[illegible]

全滿農作物 一回收穫豫想
―比前年五分減―

【新京電話通信】滿洲農産物收穫豫想調査聯合會發表=六月二十二日現在 第一回滿洲農産物收穫高豫想은 約一千六百二萬噸으로 前年에比하야 五%約八十三萬噸의減收로推定된다

【大豆】는 約四百三十七萬噸으로 前年에比하야 五%約二十三萬噸의減收

【高粱】은 約三十九萬噸으로前年에比하야 一%約六萬噸의減收

【粟】은 約三百七十三萬噸으로 前年에比하야 十四%四十六萬噸의減收

【玉蜀黍】는 約百七十萬噸으로 前年에比하야 一%約一萬噸의增收

【小麥】은 約七十七萬噸으로 前年에比하야 十一%約十萬噸의減收가豫想된다그리고 南北滿別로보면如左하다

南滿地方
前年에比하야減收가豫想되는 農産物은 高粱 粟 陸稻等으로 此等은主로 作付面積의減少와 作況不良에 起因한다 增收가豫想되는 農産物은 水稻及雜穀으로 此等은 作付面積의 增大와作況에因한 結局總收穫高九百六十一萬噸으로前年에 比하야 約十六萬噸二%의減少가豫想된다

北滿地方
前年에比하야減收되는作物은 粟 大豆 小麥 雜穀等으로 農耕資金及勞力의 不足에基하는 作付面積의 減少並天候不順에 基하는 作況不良에原因한다 增收가豫想되는것은 高粱 玉蜀黍 陸稻 水稻等으로 모다地步合變化를 招來하야大槪作付의 增加에 起因한다 結局總收穫高六百四十一萬噸으로前年에比하야 約六十七萬噸九%의 減收라고 推定된다

表忠寺境內에 天然藥草山
百卅八種의天然藥草가 七千餘町步에茂盛

【釜山】慶南道衛生課에서古來로藥草가茂盛하야 三南地方의靈地라고하는 密陽郡丹場面表忠寺境地靈峯에 道衛生試驗所技手 三浦 田島兩藥學士를派遣하야 實地探査를식혓든바果然天然藥草인山歸來 山桔梗 地楡草 白屈草 元佰子 松脂 羲英 蓖麻等乾材藥이 一百三十八種이나 表忠寺境地靈峯七千餘町步天然的으로茂盛하야잇서 道當局은 山所有主와 交涉을하야 自由로 採草케할뿐아니라 農家의副業으로 藥草生産의길을 지여주기로하엿다는데 方今道衛生室에서 여러가지로 藥草效果를 分析試驗中이라한다。

最近五年間小作爭議統計 (農林局調査)

	四年	五年	六年	七年	八年
京畿	一八	九五	五四	二四	一二二
忠北	一五	一七	二五	二	六六
忠南	一三〇	一二二	二六〇	九〇	一六六
全北	三八	九四	八四	七〇	五九八
全南	四五	一四八	一四〇	三五	六六五
慶北	五	六一	一五	六	七七
慶南	一六五	一六九	二七	五三	二三三
黃海	四	二三	一〇	一四	四一
平南	―	二	―	―	一三
平北	六	三	一	―	三
江原	一	四	一	六	四
咸南	―	―	―	―	一
咸北	―	―	―	―	一
計	四二三	七二六	六六七	三〇〇	一、九七五

朝鮮農地令槪論
經濟的根據와法律的解釋 (七)
辯護士 李在元

七、舍音其他小作地管理者

朝鮮에서舍音이라고 通稱되는 小作地管理者의 橫暴貪虐의弊害가甚大함은 世上이共知하는事實이라 여기贅說할必要도업거니와『地主가小作地의所在地方에 居住치안코 또는農業事情에 通치못하기때문에 勸農을그行使에 得當치못하고 或은管理者 가授與된權限을逸脫하는等으로말미암아 小作人의입는不利益이 不少함은周知의事實이라』고 當局者도認定케되야 그弊害를矯正하고저農地令에 規定을設하야『賃貸人은舍音其他小作地의 管理者를置하는때는 朝鮮總督의定하는바에依하야此를府尹、郡守、島司에게屆出』(第四條)케하야 그取締에資하기로한바『賃貸人이이規定에 違反하야屆出을하지아니하며或은 虛僞의屆出을한때는三百圓以下의 罰金에處한다』(同令第三十一條)그리고府尹郡守又는 島司가舍音其他小作地管理者를**不適當** 하다고 認定하는때는府郡島小作委員會의 意見을듯어賃貸人에對하야 其變更을命함을得한다』(同令第四條)『賃貸人이이命令에 違反한때는亦是三百圓以下의 罰金에處한다』(同令第三十一條)以外의必要한規定은總督府令으로定할터이니(同令第五條)施行規則의制定이可及的效果잇게되기를바란다

八、小作委員會

일즉 小作調停令에基하야 朝鮮에는 調停機關으로 各府郡島에小作委員會를設置하얏는바 이번農地令으로써이制度를 公認하야小作料의額 支拂時期 減免의標準또는小作期間 契約更新轉貸事由等모든小作에關한 一切事案에對하야 判定을하고 그判定의結果에對하야 法律上効力을附與하기로하얏다

小作에 關한事項은簡易하게第三者의公平한判定을맛게하는것이 極히便利하고 效果的일것은勿論이나 그判定機關의組織如何는利害關係가 甚大하지안흘수업다。

今年四月十日勅令第八六號로發布된 朝鮮府郡島小作委員會官制에依하면 小作委員會는道知事의監督에屬하고(同令第一條)會長及委員十人以內로써組織하는데(同令第三條)會長은府尹郡守島司로써充하고 委員은道知事가 命하기로되얏다(同令第四條)

그委員 任命의 選擇에十分留意하야 愼重히 하기를바라는바이다 獨逸의小作保護法에 小作仲裁裁判所의 組織이 裁判長은 裁判官又는高等行政官의資格잇는者로하고 그陪審員은반듯이地主及小作人의 兩團體에諮問하야 自身耕作에從事하는者를그兩階級에따라 大中小의小作地에區別하야 各同數式選出하게規定한것에比較하면너무漠然하야 不滿의感이업지안타。小作委員會와 獨逸의小作仲裁裁判所와는 勿論그權限이다르지만 朝鮮서는小作에關한爭議의調停이나 爭訟을普通裁判所에管轄식히어

그機關 의特別組織이 업슴이本來遺憾이엇스니 平和的解決機關으로 가장 囑望이만흔小作委員會의 組織을 좀더 理想化식힐 具體的明文이 必要치안할는가

以下의그選用에 關한規定을簡略히列擧해보자『當事者는合意로써關係와 所在하는府郡島小作委員會에對하야 小作料其他小作關係에 對하야判定을求함을得한다(農令第二四條)即調停申立이나 訴訟提起와달나、小作委員會의判定을 求하는데는當事者의 合意로서야되고 單獨으로는하지못한다。그러고이

判定에 不服이잇스면 當事者又는小作官의 申立에依하야裁判所가 不當타認定하는때는이것을取消함을得한다(同令第二六條一項)當事者만이아니라小作官도不服申立을 할수잇슴이 特色이다 判定을 取消하는裁判은小作地를管轄하는 地方法院又는地方法院支廳의 合議部에서非訟事件手續法에 依하야서한다(同令第二八條)그리고判定의取消申立을 却下한裁判에對해서는卽時抗告를할수가잇스나(同令第二六條三項)그判定을取消하는 裁判에對해서는

不服을 申立하지 못한다(同條第二項) 그런데小作委員會의判定은 그通知잇슨 日로부터 二週間內에裁判所에取消申立을하지안핫거나、又는申立却下의裁判이確定된때는그當부터當事者間의契約으로서의効力을가지게되다(同令第二七條)

그리고小作委員會의判定事件에는 往往訴訟이繫屬하며또는調停令에依한 調停申立을하는境遇가업지안흘것이므로 小作問題解決의 性質에鑑하야小作委員會의判定이잇기까지 當該

裁判所 는決定으로서 訴訟手續又는調停手續을 中止함을得한다(同令第二五條)그런데小作委員會에判定은 相當히重要한問題이기도하고 또이러한問題의秘密事項關係가 이것이外部에漏泄되면여러가지 惡影響이生할念慮도잇스므로『小作委員會에出席한者가 까닭업시會議의顚末 小作委員의意見或은其多少의數又는 小作官의意見을漏泄한때는千圓以下의 罰金에處한다』(同令第三〇條)

附則으로 八個條의經過規定이잇스나 一見明瞭하므로여기解說을略하고 本論을맛치는다 좀더實際的事案을例擧하야 具體的

論評을 해보고십헛스나 이小論으로할수업는바이업 遺憾이다。 ―(完)―

工業現狀打診(三)
分布狀態와資源調査
各地의振興意見
釜山地方(續)

再製鹽製造業
은明治三十七年許斐氏가 釜山鎭寧附近에工場을設하고 製造를開始한것이嚆矢이다 爾來多大한努力에依하야 漸次發達되어 現在重要工業의 一이나 政府에서는 鹽의關稅特例廢止에伴한朝鮮內鹽業保護의 立場으로 明治五年四月一日以降鹽의輸入을管理함에依하야 本業의將來에相當한影響이잇슴을免치못하겟다 現在 工場數十二製造高二千九百七十二萬斤 價格四十萬圓이다

洋襪掌甲
製造業은 微微하야 昭和六年末現在製造業者 六戶從業者百八十四名生産十三萬五千圓에不過하고 本品은日本內地人側의 足袋需要와가티 近來朝鮮人間에서는 고무靴普及에伴하야需要者가著增된때문에 朝鮮內各地에本工業의 勃興을보앗스나 日本內地方面에서每年約三十萬圓內外의 移入이잇는터이다

鐵工業
鐵工業者百四十四戶로鐵道車輛의製作과 修理를비롯하야各種農工業用器具機械의 製作修理建築用品、船舶等의製作을主로하고 從業者三百十一人生産高二十六萬圓에達한 狀況으로서各種産業의勃興에伴하야去益其內容이充實되어간다

造船業
府內造船業은 二十數戶를算하나 所謂工場에該當한것이十工場으로 從業者百九十一人生産高二九二、〇〇〇圓이다 釜山의造船業은 近年의不振으로船舶의建造가減少되고修理業等에 依하야事業을維持하는狀態이나 工場의設備改善과 經營方面에서 主로 經費節約과 當業者가 努力中이다 [illegible]要가업기에 至하얏다

鑄鐵業
工場은모다相當한設備가잇고現在工場數六이잇고 其中은中國人經營이오其他는日本內地人經營이다 主로朝鮮式鍋釜等을 비롯하야스토부機械部分品建築用品 農器具等各種類에亘하야 昭和六年中九萬九千圓이다

製材業
現在本工場數 九、昭和六年의製材高는十二萬四千圓에達한바原木은樺太材 需材가其大部分이다

窯業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釜山工場은 釜山의唯一한陶器工場이오朝鮮重要輸出品製造工場으로서一個年에넉넉이 二百萬圓의生産能力을가지고잇스나爲替關係其他外國品과의 競爭上製品의賣行이消長이잇서 昭和六年中의生産이僅히二十二萬圓에 不過한것도 如上의理由에因한것이다同會社는近年朝鮮家庭用食器類의製造를 試하고 日本內地移入品에 對抗하야良好한 成績을擧하야 今後이方面의 活躍이期待된다

印刷業
釜山日報社及朝鮮時報社兩新聞印刷業을 加하야 十八工場이잇고 設備도相當히 完備되어 特殊印刷物도 先進地에比하야 遜色이업다 昭和六年中의 請負金額은 四十五萬圓從業員三百人이다

石鹼及曹達製造業
洗濯石鹼의 製造를 主要目的으로한것으로 六工場이잇는대昭和六年中 生産高石鹼十三萬圓이다 洗濯石鹼은 移入品에對抗하야 全朝鮮各地에 搬出되고 近來洗濯曹達에 代하야一般使用普及을 보임으로써釜山의將來有望工業의一로서期待된다

고무靴製造業
朝鮮人用고무靴、地下足袋等은近時其需要가增하야朝鮮內各地에相當히製造業의勃興을보이엿다 釜山의昭和六年末現在工場數六、從業者千四百八十八名、生産高百六十八萬圓에達하야 朝鮮人用製品을主로하고 移入品에對抗하야相當히 聲價가잇다

製氷業
釜山水産株式會社、朝鮮水産輸出株式會社及第一産業組合의三工場이잇스나 水産輸出會社는目下休業中으로 産業組合의工場은 昭和七年에 開業한것이다 昭和六年中의 製産高는一萬五千噸十二萬一千圓이다

其他製造業
以上의外에製菓、指物、履物製造、硝子、蒲鉾、木箱、淸凉飮料、農具、肥料等의 製造業과 如한은모다釜山의 工業으로서 重要한位置를占하고잇다

●●●● 第二項 釜山地方의資源과今後의有望工業 ●●●●

一、釜山自體가工業資源을갓지못하얏슴은 朝鮮內他地와갓다할지라도 海陸의交通이至便한곳임으로日本內地及朝鮮內에서 資源의供給을밧기가容易하고 또採算的으로가장有利하다

二、釜山附近의沿岸地帶及背後地帶의 工業資源은水産、農産、林産모다豐富함으로 生産加工業精米工業、釀造業、紡織工業(棉、麻)木工業等을비롯하야 이에附隨하야生하는 各種工場의經營도 亦可能하다。燃料炭에잇서서는 江原南方面에多量의 埋藏이잇서將來이것을 보게되면 釜山의工業界를 潤澤케함이 多大할것이다 그러나 現在釜山은低廉한船運賃으로 近距離의 九州地方에서燃料炭의供給을 바다燃料에對한念慮는 毫無하고또그炭價는 九州地方에서보다 저욱이高價라할지라도九州炭의供給을밧고잇는 他의日本內地各都市에 比하야어느곳보다도 低價이다。

三、이를要컨대 釜山에서經營可能한 工業은元來釜山은日本內地、朝鮮、滿洲는勿論、멀리海外로부터도 工業原料의供給을바듬에 至便한位置를占하고 잇슴으로、採算的으로有利하고 需要가永續性잇는製品이면、其種類如何를 不問하고製造工場을 經營할수잇다고信한다。例하면 日本硬質陶器會社、朝鮮紡織會社、고무工場、造船鐵工業、마니라로―프會社、燒酎會社과가든것은 其原料를 朝鮮內에서 供給바듬이업고 또販路는반드시朝鮮內만을 目標로하지안음에不拘하고 現在釜山에서經營되어모다 相當한成績을擧하고잇슴은 釜山에서各種工業의經營이可能함을 證左하는것이라할것이다

●●●● 第四項 其他工業의振興策 ●●●●

一、運賃에關한件 原料 製品의船運賃及鐵道運賃의引下를圖할것
二、金融에關한件 金利의引下並原料 製品 工場建物 機械等을擔保로하는貸付의簡易化를圖할것
三、動力에關한件 電氣統制에依하야 一層低廉한電力의供給을圖할것
四、作業用水에關한件 工業用水料金의引下를圖할것
五、施設에關한件 工業地域을設定할것 及釜山鎭海岸과洛東江과의間에 運河를通할것
六、工場新設에關한件
七、中小工業에關한件 貸付損失補償制의設定並工業組合令의施行
八、朝鮮産奬勵의徹底에關한件 于先官廳에서範을示하야 朝鮮産消費를奬勵할것 朝鮮內造船業의振興을圖하기爲하야 官廳用의小型船舶과가든것은 造船又는修繕을朝鮮內에서할것(繼續)

藥草講習會

京畿道에서는 藥草의栽培普及과貧地指導를爲하야 來三十日부터三日間開城第二公普校에서또八月四日부터는 二日間加平公普校에서 斯界의權威者杉原城大敎授、石戶谷同講師、川口總督府技師 都藥草敎授等을招聘하야 藥草講習會를開催하기로되엿다

副業産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査)

京城 (七月十七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同	赤	同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외	朝鮮産	百個	[illegible]
외	中國	同	[illegible]
수박	臺灣	一貫	[illegible]
同	土産	同	[illegible]
茄子	土産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靑葱		同	[illegible]
솟갓		同	[illegible]
양상치		同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土産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마눌		百個	[illegible]
牛蒡		一貫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祝	三貫	[illegible]
同	紅魁	同	[illegible]
西洋李		同	[illegible]
栗 早生赤	日本産	三貫五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同	今村秋	同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갓		一斗	[illegible]
실백		同	[illegible]
苦椒	朝鮮	百斤	[illegible]
실고초	朝鮮	同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乾柿		百個	[illegible]
고사리	乾物	一束	[illegible]
大棗	中國産	一斗	[illegible]
同	朝鮮産	同	[illegible]
銀杏		同	[illegible]
乾蕨根		同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生鷄	雄	百匁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生兎	白五百匁以上		[illegible]
同	白以外의것百匁		[illegible]
同	雌雄二百五十匁以上四百匁	同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四季鳥卵		十個	[illegible]
鵝卵		同	[illegible]
蜂蜜		石油罐一罐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안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同	펠트	同	[illegible]
메기스兎皮		一枚	[illegible]
豚	鬃毛	百斤	[illegible]

◇購買品

品名	單位	價格
成鷄用配合飼料	八〇斤	[illegible]
育雛用 同	五〇斤	[illegible]
中雛用 同	同	[illegible]
麩	九〇斤	[illegible]
玉蜀黍割(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高粱粒	五斗	[illegible]
同割	同	[illegible]
鷄虫用粉	[illegible]	[illegible]
魚粉メ粕	八〇斤	[illegible]
糀	八五斤	[illegible]
燕殻	百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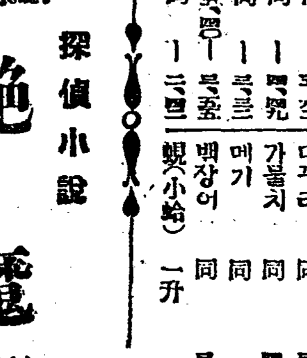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二寸目	百尺	[illegible]
三尺幅 同	同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五分目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上	一反	[illegible]
同	中	同	[illegible]
同	下	同	[illegible]
經木眞田		一貫	[illegible]
柏鵡		同	[illegible]
莞草		同	[illegible]
栗虫藥		百斤	[illegible]
椎茸		一貫	[illegible]
切乾大根(서리맘라몬―)		十貫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蜆(小蛤)	一升	[illegible]



探偵小說 艶魔 (54)
徐東山 作
金奎澤 畵

참극(慘劇) (四)

오복이의 차는 섯난 황소대가리에 밧친 고양이색기처럼 그냥 낭떠러지밋흐로 굴너떠러지고마럿다。

하늘차는 솜씨잇게 다시 핸들을 돌니어 방향을 바로잡어가지고 진속력으로 다려나고 마럿다―겨우 삼사초동안의일이다。

이것이 백주라든가 또 시내이엇드면 될번이나 한 물법이라만 자정이 갓가운 시외니 누구하나 그것을 목도한사람도업고 따러서 시바할사람도 업섯든것 다。

요란한 충격소리와 이상한 비명소리에 잠이깨여 동리사람이 모혀드럿슬때에는 낭떠러지밋헤 굴러저잇는 자동차의 유해를 발견햇슬뿐이다 죽엇는지 살엇는지 다만피투성이가된 운전수―오복이는들것에 담기어 대학병으로 갓다。

순사가 현장에 달녀오고한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

이약이는 여기서 또다시잠간 뒤로돌너가서……。

붓잡혀간 험수룩한 사나이는 겨우정신이드럿다 깨마하면 마취를 식하고서히기때문에 머리가 마치로 어데마진듯이 띵―하고 꽤이다는듯이 아푸다。

때는 어느때쯤되엇는지 모르것고 다만 희미하게 조나가기어저잇다。

해안을 둘너보니 뜨는한 철문하나가 잇슬뿐 아모데도창이 업는것이 지하실임이 분명하다。

그나마 공사를 하다가 마럿는지 벽돌등 차곡차곡 이애구리부룰 세면트가 그대로 비죽비죽 소사잇고 이구석 저구석에는 공사에쓰든 세면트무든 바게쓰며 나무통이 난잡하게 굴러잇다。

그는 아가씨는? 하고 둘너보앗스나 자긔혼자뿐이다 아가씨란 그여자밥이다。

그는 자긔자신을 굽어다보앗다。우아랫 내의만 입은채 꽁꽁 결박을 지고 거적자리우에굽녀저잇는것이다。

조곰 저편에 누가 버서던젓는지 양복바지와 저고리가 굽너저잇다。

치운품으로는 그거나마 집어다가 걸치스면 조켓는데 팔다리를 묵것스니 몸을 움직일수가업다

그리다가 시험삼어 뒤로 결박지은 팔목에 힘을 주어보니 이게웬일! 시르르 목긴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는가!

물론어떠한 사람이 당햇든지 이경우에 아일을 당햇스면 밋칠듯이 깁버 아니할사람은 업슬것이다

그는 기운이 벗쳐낫다。

그는 손재이게 다리에묵근을 풀어바렷다。그리고 위선 버서내던진 양복을 집어입엇다。

그러나 그 다음순간! 그는절망을 하엿다。

웅당히 밧그로 잠겨잇슬 저철문을 어떠케 열고 나간단말인가!

우둑허―나 서서 원망스럽게철문을 바라보다가 그는 그알호로 척척 걸어갓다

처음 손으로 밀어보앗다 다시 팔로 밀어보앗다 조곰 반응이 잇는것가터 이번에는 억개를대이고 밀어보앗다。

조곰씩 조곰씩 소리도업시 철문은 나갈자리를 벌녀주는것이다

그의 몸은 밀정철문그밧그로 비어저나왓다。

캄캄 어두어서 아모것도보이지 아니한다

그리다가 바른편으로 저―편에 희미한 물빗치 겨우보인다。

그는 살금살금 기어서 불빗차는 압혜까지 이르럿다。

말소리가 유리창으로 슴여나온다 콕―콕하는소리도들린다

가만히 고개를 들고 드려다보니 두사람이 희미한 초人불밋해서 화투를 치고잇고 두사람은 거적자리우에 이불을펴고잡을 자고잇다。

여기까지는 무사하 나왓지만 밧그로 나가자면 어데로가야할가?

설마하니 저녀석들터러 무러볼수는 업는일이고……。

그는 가는데까지 가보겟다고 또다시 엉금엉금 기엇나

지금 그가 기고잇는곳은 지하실의 복도인듯하다 바른편으로 다시 꿈으라서 기어가느라니까 무엇이 대가리에 부드친다。역시 철문이다 분듯는소리에 방안에서 무슨 반웅이 업나하고 잠시 귀를기우렷스나 그대로 무사하엿다

먼점과가터 그는 철문을 열엇다 돌창계올 여덟개쯤 올나가니 훤하게 별불빛은 한울이 보인다 인제는 사뭇나

그러나 구는 그라음도간단어나려야니하고 되려 돌창게에 주저안젓다。